



Read the full book on: 10.1787/empl_outlook-2016-en

2016 년 OECD 고용 전망

한국어 개요

금융위기 이후의 일자리 간극이 마침내 좁혀지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질 낮은 일자리와 불평등한 기회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조건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직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 이후에 거의 10 년만인 2017 년에 그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은 불균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 수의 OECD 유럽국가들에서 실업률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노동시장 부진이 회복된 국가에서도 낮은 질의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불평등성이 우려 사안으로 부상했다. 대불황(Great Recession) 동안에 실직했던 근로자들이 지금은 많이 일자리로 복귀했지만, 임금상승은 미약하며 직무스트레스는 혼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대불황 동안에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이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 높은 임금의 일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영구적으로 잊혀질 리스크를 가진 고용과 교육·훈련에서 단절된 저숙련의 청년들

노동시장 성과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숙련의 청년들과 같은 취약집단은 고용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소위 “니트족”)의 리스크를 가진 채로 잊혀지고 있다. 2015 년 OECD 지역에서 15-29 세의 15%가 이 범주에 속했으며, 이는 2017 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OECD 지역 평균적으로 모든 니트족의 38%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으며,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다른 니트족보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낮다(33% vs 45%). 거의 1/3 의 저숙련 니트족이 실직자 가구(예, 고용 성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에 속해 있으며, 이는 이 집단에 속한 많은 청년들이 현재의 소득은 낮고 노동시장 기회에 제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집단에 속한 많은 이들은 장기적인 직업전망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직장에서 사용되는 직업역량이 생산성, 임금, 직업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정부는 보다 직업역량 활용이 더욱 개선되도록 환경 조성해야 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정보처리 역량을 활용하는 범위는 생산성, 임금, 직업 만족도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새로운 직업역량 분석(「성인기술·역량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중 25 개국 이상의 자료에 바탕)에서는 직업역량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직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팀워크, 직무순환, 보너스 지급 및 업무시간 유연성과 같은 고성과의 업무관행(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이 직장에서 업무역량 활용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화와 역외이전도 업무역량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의 효과는 해당 국가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 될 수 있다. 단체교섭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특정한 노동시장의 제도들도 대부분의 경우 업무역량의 활용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업무역량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정책 선택사항이 제시되고 효과적인 실행의 국가별 예시가 설명되어 있다.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고용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의견에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개혁에는 노동시장의

단기적 비용 조정도 동반된다. 산업수준의 자료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혁과 해고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일시적 고용손실을 수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이행된 세 곳의 고용보호법제(EPL) 개혁에 대한 사례연구에 제시한 보완적 증거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개혁이 경제확대 시기 동안에 시행될 경우에는 이에 동반되는 단기적 비용은 적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고용비용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책 선택사항도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해고 규칙의 완화시키는 개혁을 단체교섭이나 실업급여의 개혁과 통합시키는 방식도 포함된다.

신흥국의 성별 격차 해소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

지난 100 여년 동안의 선례가 없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전세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 비율은 증가했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질이 나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국 16 개 국가에 대한 최신의 성별 격차 현황이 설명되어 있다. 광범위한 노동시장 성과의 최근 추이가 요약되었으며, 그 주요 동인이 파악되어 있다. 특히 전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가 면밀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고유한 구성요인에 따라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의 복합적 세트가 제시되고 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doi: 10.1787/empl_outlook-2016-en